

【 해외금융뉴스: 유럽 】

보험회사의 시장가치 및 공정가치 적용에 보완 필요

- ‘EU지역 보험 및 퇴직연기금 감독위원회(CEIOPS: Committee of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Supervisors)’는 최근 일본의 야마토 생보사 파산과 같은 보험회사 파산은 유럽 내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.
 - CEIOPS는 최근의 금융위기는 유럽 내의 보험사와 퇴직연기금의 단지 일부분에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유럽 내의 시스템은 건전하다고 공식발표함.
- 다만, 투자가치의 변동 폭이 커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보험회사 및 퇴직연기금의 시장가치 및 공정가치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CEIOPS의 위원장이 언급함.
 - 현재까지 EU지역의 보험회사와 퇴직연기금은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증권은 시장가치를 적용하며 시장가치를 적용할 수 없는 자산은 IAS39조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가치를 적용하여 옴.
 - 그러나 최근 일본의 생보사가 파산하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시장가치가 투자자산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감독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자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.
- 한편, 글로벌 주식시장의 침체에 따라 유럽의 보험사들은 주식투자에서 손실이 크게 발생하였고 자사의 주가총액도 크게 감소하였음.
 - 유럽 최대의 보험사인 독일계 Allianz는 1년 전에 비해 자사 주가총액이 60% 가까이 하락하였고, 경쟁사인 프랑스계 AXA는 50%가 감소하였으며 이탈리아의 Generali는 40%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.

(Reuters, 10/10)